

일본신문의 정정기사게재상황

일본신문협회 심사실

최근 특히 신문계로서는 충격적이었던 「산호사건」(편집자 주 : 바다밑의 산호에 사진기자 자신이 크게 글자를 새겨넣고 마치 다른 사람들에 의해 자연환경이 파괴되고 있는 것처럼 조작, 이를 촬영 보도하여 물의를 일으킨 사건으로 아사히신문에서는 이 사진조작사건에 책임을 지워 담당기자와 편집간부를 해임시켰으며 사장까지도 인책사임했다)을 계기로 그 후 1,2년 사이에 「정정기사」에 대한 언론사들의 사고에 상당한 변화가 있었지 않았나 하는 인상이 짙다.

사회일반의 인권의식이 높아진 것을 반영하여 독자의 소리에 한층 귀를 기울여 보도나 부적절한 표현은 조속히 정정하여 독자와의 연대를 강화하면서 신뢰관계의 유지·발전을 도모하려는 자세가 엿보이고 있다.

신문협회 심사실은 1973년 이래 5년 간격으로 가맹각지의 정정기사 게재 상황을 조사해 왔는데 1990년 9월 1일부터 1개월간 스포츠지, 전문지를 제외 한 일반일간지 96개지를 대상으로 『제 5회 정정기사게재상황조사』를 실시했다. 제 1회 조사(1973년 3월 하순부터 4월 하순)때만은 조사대상기간을 2개월간으로 했으나 그 이후에는 1개월간으로 단축, 제 2회는 1977년 6월, 제 3회는 1982년 6월, 제 4회는 1987년 2월에 각각 실시했다. 이번의 제 5회는 제 4회 조사로부터 4년반이 경과한 지난·5월 하순에 개최된 제 31회 지면심사전국간담회의 참고자료로서 정리한 것인데 특히 제 3회 조사 이후의 변화에 주목을 두고 조사했다.

두말할 필요도 없이 정정기사는 고통스러운 일이며 적을수록 좋은 것이다. 이 조사결과 속에서 평소의 취재·보도활동의 자세를 생각하면서 어떠한 힌트라도 얻었으면 하고 생각해 본다.

다음에 이 조사결과의 개요를 소개한다.

정정기사의 게재지와 건수

조사대상 96개지 가운데 조사기간안에 「1개 이상 정정기사를 게재」한 지수는 83개지로 제 4회때의 93개지에 비해 약간 감소했다(〈표 1〉 참조). 이 83개지의 총 게재건수는 669건으로 제 4회 때의 546건에 비해 20% 이상 증가하고 있다.

〈표1〉 訂正記事의 게재상황

	제1회	제2회	제3회	제4회	제5회
掲 載 紙	80個紙	76個紙	80個紙	93個紙	83個紙
非 掲 載 紙	7個紙	18個紙	16個紙	2個紙	13個紙
計	87個紙	94個紙	96個紙	95個紙	96個紙
總掲載件數	154건	289건	360건	546건	669건
1個紙平均月 間掲載件數	1.9건	3.8건	4.5건	5.9건	8.1건

또한 「1 개지 평균의 월간게재건수」는 제 1 회 조사 이래 증가경향을 보여 이번 제 5 회 조사의 경우 8.1 건이 라는 높은 증가를 보이고 있다.

이번 조사에서 1 개월간에 정정기사의 게재가 「1 건뿐」 이었다는 매체는 10 개지(전회때는 9 개지)였으며 또한 1 개월의 월간최다게재는 28 건(전회때는 24 건) 이었다.

다음에 기술하는 집계숫자에서는 「부고」를 제외시키고 있다.

조사기간중의 정정기사의 「하루게재상황」을 보면 가장 적은 날은 5 간, 가장 많은 날은 42 건으로 편차가 심하게 나타나고 있다.

〈표 2〉는 「요일별」로 집계한 것이다. 제 4 회때는 금요일에 가장 많았으나 이번 회에서는 주말에 가까워지면서 조금씩 증가하고 있다는 결과가 나왔다. 한편 「월요일에 가장 적다」는 점은 이번 제 5 회 조사에서도 변함이 없다.

〈표2〉 曜日別 게재건수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제3회	25건	43건	56건	44건	40건	44건	39건
제4회	55건	85건	74건	73건	103건	69건	60건
제5회	42건	75건	104건	105건	109건	113건	115건

정정기사와 원기사와의 관계

정정기사의 대상이 된 「본래의 기사」 관계에 관해 원기사의 게재요일, 또는 게재되기까지의 기간을 조사한 것이 〈표 3〉, 〈표 4〉이다(다소 「불명」한 것이 있다). 원기사의 게재요일에서는 토요일이 가장 많은 반면 일요일에 가장 적다는 대조적인 결과가 나타나고

있다. 또한 정정기사 게재까지의 일수 가운데 「동일」 조건의 보도를 석간에서 정정한 것과 별쇄 중의 기사를 같은 날의 본지에서 정정한 것으로 되어 있다.

〈표3〉 原記事의 掲載曜日

월요일	100건
화요일	78건
수요일	107건
목요일	89건
금요일	98건
토요일	119건
일요일	67건

〈표4〉 原記事掲載日로부터 訂正記事掲載일까지의
日數

同日	26건 (4.0%)
1日	451건 (68.5%)
2日	74건 (11.2%)
3日	24건 (3.6%)
4日	30건 (4.6%)
5日	4건 (0.6%)
7日	28건 (4.3%)
8日 이상	21건 (3.2%)

「동일」, 「1일」, 「2일」을 합치면 전체의 80% 이상이며, 정정기간이 「3일」, 「4일」인 것까지를 합치면 90%를 넘는다.

「8일 이상」 21건 중 「14일」 이 약 반수인 10건이며 가장 긴 정정보도일수는 「49일」이다. 「정정기사 1건당 행수」를 단순계산해 본 결과 6.9행으로 나타났다.

정정기사의 형식

정정기사의 형식은 「정정」과 「사과」가 대부분이며 이밖에 「사과 겸 해명」, 「잘못되었습니다」, 「추가」 등의 표시가 약간 보였다. 전회때는 「정정」과 「사과」가 90%였으나 이 번의 제 5 회 에서는 제 3 회 때와 거의 비슷한 숫자이며, 「정정」만 90%, 「사과」까지 합치면 98%를 넘는다<표 5>

<표5> 訂正記事의 形式

	제3회	제4회	제5회
「訂正」	277건	417건	578건
「訂正」에「謝罪」를 결들인 건수	55건	51건	4건
「謝罪」	27건	76건	73건
「謝過」겸「諒解」	5건	10건	6건
기타의 表示	-	7건	5건
表示없음	1건	14건	1건

정정기사의 컷 표시

정정기사의 표시는 「컷」 형식에 의한 것과 「활자」만의 것이 있다. 전회에 비해 이번 제 5 회에서는 「컷」의 사용률이 대폭 늘어나고 있다. 「컷」을 사용한 정정기사의 건수와 이것이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표 6>과 같다.

<표6> 「컷」 表示의 件數와 比率

제3회	제4회	제5회
159건 (50.5%)	303건 (55.5%)	495건 (76.0%)

「컷」 사용의 경우 형식은 「정정」과 「사과」가 압도적이거나 「사과 겸 해명」, 「잘못되었습니다」라고 게재된 예도 있다. 특히 커다란 문자를 사용한 특징있는 「컷」이나 정정기사 전체를 선을 둘러서 표시하는 등 눈에 잘 띄도록 하는 경향이 늘어나고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관련사항까지 첨가하여 「익히는 정정기사」를 만들려는 노력까지도 엿보이게 하는 신문도 있다.

정정기사의 표시방법을 「컷만으로」, 「컷과 활자의 병용」, 「활자만으로」 하는 세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지수의 변화를 표시하면 <표 7>과 같다.

<표 7> 訂正記事의 表示方法

	제3회	제4회	제5회
「컷」만으로 表示	23個紙	24個紙	34個紙
「컷」과 活字 併用	16個紙	24個紙	34個紙
活字 만으로 表示	41個紙	42個紙	27個紙

정정의 내용

정정의 내용은, 가장 많은 것이 인명, 조직명, 지명, 직함 등의 「명칭, 호칭」의 오보이며, 다음이 「숫자, 수량」의 오보, 「사실관계의 오보, 편집상의 오보의 순으로 되어 있다<표 8>.

사실관계의 오보는, 예를 들면 명칭, 호칭이라든가 숫자, 수량 이외의 오보로 오자, 오식과 같은 부분적인 오보도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

<표 8> 訂正의 內容

	제3회	제4회	제5회
명 칭·호 칭	138건	208건	215건
숫 자·수 량	65건	108건	172건
사 실 관 계	94건	127건	158건
편 집 상 의 오보	48건	81건	108건
제목에서의 오보	22건	26건	47건
인권에 관한 오보	13건	12건	15건

「인권에 관한 오보」는 「사실관계」의 오보 가운데 「폭력단 단원」이라고 한 것은 잘못」이라고 정정한 것과 같이 다소라도 인권과 관련있는 사실관계를 정정한 것을 집계했다.

정정의 내용을 전회와 비교하면 「숫자, 수량」의 건수가 증가했으며 다음이 「사실관계」, 「편집상의 오보」, 「제목에서의 오보」의 순으로 「명칭, 호칭」이나 「인권에 관한 오보」에서는 거의 변화가 없다.

제 1 회 조사때부터의 전체적인 추이를 보면 제 2 회에서는 「숫자, 수량」이 1 위였으나 그 이외에는 모두 「명 칭, 호칭」, 「사실관계」, 「숫자, 수량」의 순으로 되어 있다. 제 2 회와 제 3 회 사이에서는 「명칭, 호칭」이 크게 늘어난 데 비해 「숫자, 수량」은 오히려 감소했다. 그러나 제 4 회와 이번의 제 5 회에서는 「숫자, 수량」이 크게 늘어나 「사실관계」와 순위가 바뀌었다. 「편집상의 오보」나 「제목에서의 오보」도 이번 제 5 회 조사에서는 상당히 증가하고 있다.

「명칭, 호칭」, 「숫자, 수량」 등의 오보에 관해 더 체계적으로 내용을 분석해 보면 <표 9>와 같다.

(1) 「명칭, 호칭의 오보」

「명칭, 호칭」의 오보는 전회의 208 건에서 이번 회에서는 215 건으로 약간의 증가를 보였으나 인명은 감소했으며 조직명, 지명의 오보가 눈에 띄게 증가했다.

〈표9〉 訂正의 구체적인 内容

	제3회	제4회	제5회
[명칭·호칭]	138건	208건	215건
인명	64건	131건	101건
조직명	41건	41건	63건
지명	17건	14건	33건
직함	16건	12건	13건
품명	-	10건	5건
[숫자·수량]	65건	108건	172건
숫자	19건	46건	76건
날짜	24건	30건	56건
금액	12건	25건	25건
전화번호	10건	7건	15건
[편집상의오보]	48건	81건	108건
〈기사관계〉	32건	41건	68건
誤字·誤植	12건	16건	28건
缺落	4건	7건	18건
組版착오	12건	13건	14건
重複	2건	3건	3건
기타(취급부적당)	2건	2건	5건
〈사진관계〉	16건	40건	40건
사진설명오보	2건	11건	19건
사진이 틀리는 것	5건	14건	6건
사진이 바뀐 것	8건	9건	4건
기타	1건	6건	11건
[제목에서의 오보]	22건	26건	47건
숫자·수량	4건	1건	18건
명칭·호칭	10건	9건	14건
사실관계	6건	12건	13건
誤字·誤植	2건	4건	2건

(2) 「숫자, 수량의 오보」

「숫자, 수량의 오보」는 전회의 108건에서 172건으로 크게 증가했다. 특히 「숫자와, 「날짜」의 증가가 현저하며, 이 가운데 「숫자」는 주로

스포츠기록, 이율, 증감을 등 「퍼센트」 관련된 오보이며 또한 「날짜」에서는 모임이나 장례, 고별식관계 등에서 오보가 많았다.

(3) 「편집상의 오보」

「편집상의 오보」는 전회의 81 건에서 108 건으로 늘어났으며 「기사관계」의 정정이 크게 증가했음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기사관계의 「편집상의 ~오보」에서 가장 많은 것은 「오자, 오식」이며 「결락」과 「조회착오」로 생긴 오보의 순위가 바뀌었다. 사진관계의 오보는 「사진설명의 오보」, 「다른 인물이나 건물의 사진을 잘못 쓴 오보」, 「복수의 사진을 쓸 때 잘못 배열하여 생기는 오보」 등인데 「사진설명의 오보」가 증가하고 있는 것이 특징적이다.

(4) 「제목에서의 오보」

「제목에서의 오보」는 전회의 26 건에 비해 이번 회에서는 47 건으로 대폭 증가했다. 오보의 내용은 「숫자, 수량」에 관련된 것의 급증이 특징적이며 「숫자」, 「명칭, 호칭」, 「사실관계」, 「오자, 오식」의 순으로 되어 있다.

(5) 「인권에 관한 오보」

「인권에 관한 오보」는 이번 제 5 회 조사에서 15 건으로 나타났다. 제 1 회 조사 이후의 추이는 제 1 회 6 건, 제 2 회 19 건, 제 3 회 13 건, 제 4 회 12 건으로 큰 변화는 보이지 않았다. 건수는 적으나 내용이 다양한 것이 특징적이다. 현저한 예를 들어보면, 사건 · 사고의 기사 가운데 사람이 틀린다든가 피해자와 가해자를 바꾸어 보도한 것이 있는가 하면 000 조의 <전조원>을 조원으로 보도한 것, 또한 사실관계를 쓰면서 일부 정확성을 잃고 있다든가 오해를 불러일으킬 만한 부적절한 표현이 있었기 때문에 개인이나 관계자에게 피해를 입혔다고 하여 「정정」, 「사과」의 표시방법으로 게재하고 있다.

「정정기사의 게재면」

게재한 면별로 정정기사를 집계해 본 결과 전체적으로는 「사회면」이 가장 많았으며 다음이 「지방판」, 「경제 · 증권면」, 「문화 기획면」, 「스포츠면」의 순서로 되어 있다. 「경제 · 증권면」과 「스포츠면」이 급상승한 반면 「정치면」의 순위가 하강한 것이 눈에 띈다(표 10).

〈표 10〉 訂正記事의 게재면

	제3회	제4회	제5회
社 會 面	93건	153건	201건
地 方 版	57건	85건	116건
經濟·證券面	36건	53건	84건
文化·企劃面	34건	61건	74건
스 포 츠 面	26건	31건	62건
政 治 面	52건	84건	47건
第 一 面	24건	42건	30건
外 信 面	10건	8건	18건
社說·投書欄	3건	7건	16건